

중국어 ‘在’의 문법적 기능과 의미 표시에 관한 범주문법적 분석

최성훈* · 서월아**

(송원대 · 조선대)

Choi, Seong-hoon and Xu Yuae. (2016). Grammatical function and Semantic Representation of ‘zai’ in Chinese by categorial grammar.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24(1), 113-130. Many Chinese scholars have debated on the ‘在’(be) in Chinese language, because it can be analyzed as a various kind of syntactic category. They classify the word ‘在’ as a verb in the structure like [‘在’+ NP] in sentence final, a preposition or serial verb in [‘在’ + NP + VP] structure, and a aspectual auxiliary verb in [‘在’+ VP] structure. That is, they tried to describe the meaning of the word based on the different kind of the category. However, they disregard the grammatical functions of the word.

In this respect, we could treat the word as a functional relation such as functor-argument in the model of categorial grammar. We argued that ‘在’ in [‘在’ + NP] or [‘在’ + NP + VP] structure is a preposition, but the prepositional phrase works as a predicate of subject or an adjunct of the sentence. We also proved that the ‘在’ in [‘在’ + NP + VP] would be a sentential adverb or a predicate adverb depending on the meaning of NP in this structure. Especially the word ‘在’ in [‘在’ + NP + VP] was classified as a preposition or a serial verb, but we also proved that it works as a sentential adverb or a predicate adverb, that is, it is not a serial verb, but a preposition phrase. Finally we gave a formal representation of ‘在’ in [‘在’ + VP] as the aspectual auxiliary in the functor-argument relation.

주제어(Key Words): 범주문법(Categorial Grammar), 범주(Category), 문법적 기능(Grammatical Function), 함수자(Functor), 논항(Argument). 기사(Copula)

*제1저자 최성훈(송원대학교) **교신저자 서월아(조선대학교)

1. 서론

중국어 '在'(be)에 대한 연구는 '在'의 통사적 범주 설정의 문제와 의미적 특성에 관한 논의로 요약된다. 우선 '在'가 나타나는 환경은 다음과 같이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러한 환경에 따라 각각 서로 다른 범주를 설정하고 있다.

- (1) 我在家. 1)
I be home
(I am at home.)
- (2) 我在家看书.
I be home read book
(I read a book at home.)
- (3) 我在水壶烧水.
I be kettle boil water
(I boil water in a kettle.)
- (4) 我在看书.
I be read book
(I am reading a book.)

즉 (1)과 같은 ['在 + N]구조, (2)와 같이 ['在 + N + VP]와 (3)과 같은 ['在 + N + VP], 그리고 (4)와 같이 ['在 + VP] 구조를 갖는 경우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구조적 상이에 따라 '在'의 통사적 범주와 의미적 특성을 달리 구분하고 있다. 즉 (1)의 '在'는 동사로 간주하고 있으며, (2)와 (3)의 구조는 동일하면서도 N의 의미적 특성에 따라 (2)의 '在'는 전치사로 간주한데 반해서 (3)의 '在'는 연동사로 분류하고 있으며, (4)의 '在'는 진행상을 나타내는 상조동사로 분류하고 있다. 즉 吕叔湘(1999)에 따르면 (1)의 '在'는 家를 보어로 취하는 동사로 존재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리고 夏焱(1989)에 따르면 (2)의 경우에 있어서는 명시적 동사구 '看书'(read a book)가 있기 때문에 (2)의 '在家'(at home)는 전치사구 역할을 하며, 따라서 '在'를 전치사로 분류하고 있다. 특히 (1)과 동일한 '在家'를 (2)의 구조에서는 전치사구로 간주한 것은 (2)에서 '在家'를 생략해도 문법적 문장이 유도되기 때문에 이를 부가어(adjunct)로 취급하고, '在'를 전치사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3)의 '在水壶'(in a kettle)는 전치사구가 아니라 동사구 '烧水'(boil water)와 함께 쓰이는 연동사구문으로 간주하여 '在 . . . 烧'(be .

1) 예문 (1) (2) (4)는 吕叔湘(1999) 참고, 예문(2), (3)은 夏焱(1989) 참고

· · boil)을 연동사로 다루고 있다.

- (5) a. 我 在 家 看 书.
 I be home read book
 (I read a book at home.)
 b. 我 在 家 和 看 书.
 I be home, and read book
 (I am at home and read a book.)
- (6) a. 我 在 水 壶 烧 水.
 I be kettle boil water
 (I boil water in a kettle.)
 b. *我 在 水 壶 和 我 烧 水.
 * I be kettle, and I boil water
 *(I am in a kettle and boil water.)

연동사구문이란 두 개의 동사가 나타내는 두 가지 사건이 하나의 주어에 의해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임으로 두 사건을 나타내는 요소를 동사로 간주한 경우이다. 따라서 (5a)의 '在...看'(be...read)의 두 사건은 주어 '我(I)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이지만, (6a)의 '在...烧'가 나타내는 두 사건은 '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아니다. 즉 (5a)를 (5b)로 바꾸어 쓸 수 있는 것은 '在'와 '看'(read)을 각각 독립적인 두 개의 사건을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6a)는 (6b)로 바꾸어 쓸 수 없는 것은 선행하는 동사구 '在水壶'와 후행하는 동사구 '烧水'로 분리하여 각각 독립적인 사건을 나타낼 수 없다. 바꾸어 말하면 주어 '我'는 주전자 속에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듯 (6a)를 (6b)와 같이 접속구문으로 바꾸어 쓸 수 없는 것은 '在...烧'는 이른바 연동사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a)의 '在家'는 전치사구로 다루고 있고, (6a)의 '在水壶烧水'(boil water in a kettle)의 '在...烧'는 연동사로 다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4)처럼 ['在' + VP]구조를 갖는 경우 '在'는 후행하는 VP가 나타내는 사건이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진행의 의미를 갖는 상조동사로 다루고 있다. 张亚军(2002)에 따르면 '在'는 오직 현재 진행만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이렇듯 '在'의 범주를 문장의 구조에 따라 동사, 전치사, 연동사, 그리고 상조동사 등으로 분류한 것은 '在'의 의미적 특성을 간과함으로써 '在'가 담당하는 문법적 기능(grammatical function)을 파악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즉 '在'의 문법적 기능은 '在'가 취하는 함수-논항과의 관계에 의하여 기술되어야 하고, '在'가 취하는 논항의 범주에 따라 '在'의 범주 설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在'가 나타나는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른 범주를 설정하

는 것은 '在'의 통사적 특성을 명시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이며, 의미 기술에 있어서도 명시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Ajdukiewicz(1935)가 제시한 범주문법(categorial grammar)의 모형에 따라 '在'의 범주를 부여하고 그 의미를 형식적으로 기술하는데 목적을 둔다. 중국어 '在'는 공기하는 요소와의 문법적 기능으로 보아 동사나 연동사가 아니라 전치사로서 기능과 상호동사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在'가 갖는 원형적 의미의 관계에서 볼 때에도 전치사로서의 기능과 상호동사로서의 기능만을 갖는 다는 것을 밝힘으로서 종래 '在'의 범주를 단순하고 명료하게 설정함으로써 '在'가 갖는 보편적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나아가서 전치사로 정의한 '在'는 부가적 기능과 보어적 기능이 다름을 파악하고 이들의 의미적 특성을 형식적으로 구분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렇듯 '在'의 기능과 의미를 분석하기 위한 틀로서 범주문법의 모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 분석 틀

분석 틀로서 도입하려고 하는 범주문법은 Ajdukiewicz(1935)가 처음으로 소개하였고, Bar-Hillel (1953) 그리고 Lambeck(1961) 등에서 수정·확대된 문법모형으로 확대범주문법(extended categorial grammar)으로 발전하였다. 범주문법은 제한된 기본 범주로부터 파생범주를 만들어내고, 이들 범주들이 결합하는 과정은 범주들 사이의 연산(operation)에 의하여 더 큰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결합과정을 거친다. 특히 범주문법은 통사부와 의미부가 동일한 연산에 의하여 결합되는 과정을 보임으로써 표현과 의미 사이의 관계를 1:1 관계로 기술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범주문법은 통사부와 의미부로 이루어져 있으며, 통사부는 기본범주를 설정하고 이로부터 파생범주를 유도해 내며, 의미부에서도 기본표현의 의미로부터 파생표현의 의미를 기술해 간다. 통사부를 구성하는 규칙은 다음과 같다.

(7) 범주규칙

a. 기본범주: $s, n \in \text{Categ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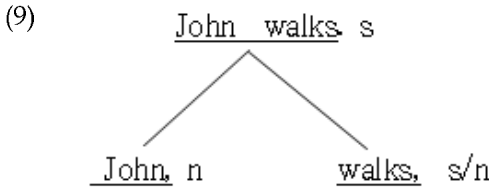
b. 파생범주: If $\alpha, \beta \in \text{Category}$, then α / β or $\alpha \setminus \beta \in \text{Category}$.

여기서 말하는 기본범주는 s와 n이다. 즉 s는 문장(sentence)을 나타내고 n은 이름(name)을 나타낸다. 그리고 이들 기본 범주를 기초로 하여 더 큰 파생범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예컨대 (7b)의 규칙에 따라 $s/n, n/s, s/n/s/n, n/n/n^2$ 과 같은 무한수의 범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러한 범주규칙을 토대로 하여 더 큰 구조를 만들어내는 형성규칙이 필요하다.

2) 그러나 실제로 이들 범주가 자연언어의 표현을 규정해주는 것은 아니다.

(8) 형성규칙: $Y + X/Y = X$

(8)의 형성규칙은 두 범주의 결합을 보여주고 있다. 임의 범주가 Y이고 또 다른 임의의 범주가 X/Y라고 한다면 두 범주가 결합된 표현은 X라는 범주를 갖는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두 범주 Y와 X/Y 사이에는 함수 논항관계 즉 연산(operation)관계가 성립해야 한다. 예컨대 n의 범주에 해당하는 표현 *John*과 s/n의 범주에 해당하는 *walks*라는 범주들이 결합하면 최종적으로 s라는 범주가 유도된다.



(9)에서 보는 것처럼 *walks*는 함수자(functor) 표현으로서 *John*을 논항(argument)으로 취하여 문장이 유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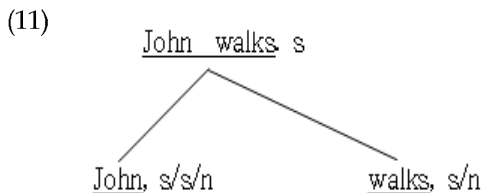
뿐만 아니라 함수자와 논항의 위치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결합과정은 동일하다. (9)에서 본 것처럼 *John*을 논항으로 간주하고 *walks*를 함수자로 간주하여 이른바 $X + X/Y$ 의 결합 관계로 간주할 수도 있지만, *John*이 *walk*를 논항으로 취한다면, $X/Y + X$ 의 구조로 간주할 수도 있다. 이러한 논의의 바탕에는 *John*의 외연(denotation)을 개체(individual)로 간주할 수도 있지만 *John*은 속성의 집합(set of properties)으로 간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John*의 외연은 *John*이라는 개체를 나타낼 수도 있지만, *John*이 가지고 있는 속성 예컨대 걷다, 노래하다, 사랑하다 등의 속성의 집합³⁾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어 *John*이 동사 *walks*를 논항으로 취하는 함수표현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이다.

(10) a. $Y + X/Y = X$
 b. $X/Y + Y = X$

Ajdukiewicz(1935)에 의하면 (10a)는 함수자가 논항의 오른쪽에 있는 경우이고, (10b)는 함수자가 논항의 왼쪽에 위치하는 경우이다. 즉 함수자의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함수자는 논항을 취하여 결합된 표현의 범주를 유도해낸다. 예컨대 (10a)에서 Y는 *John*의 범주로서 논항표현으로 간주하는 경우이고, X/Y는 *walks*의 범주로서 함수표현으로 간주하는 경우이다.

3) 이 경우 *John*의 범주 n을 s/s/n으로 간주하는 경우, 이를 범주상승(category raising)이라고 한다.

이와는 달리 (10b)에서는 X/Y 는 *John*의 범주로서 함수표현으로 간주하는 경우이고 Y 는 *walks*의 범주로서 논항표현으로 간주하는 경우이다.



(11)에서 보는 것처럼 *John*은 동사 s/n 을 논항으로 취하여 s 를 유도하는 이른바 함수자 X/Y 의 범주이다. 그리고 *walks*는 Y 의 점주로서 논항이 되는 표현이다.

그리고 의미표시 역시 통사적 관계와 1:1 대응관계로 기술할 수 있다. 의미부에서는 통사 범주에 대응하는 각각의 의미범주를 유형(type)⁴⁾이라고 한다. 예컨대 통사범주 n , s 에 대응하는 의미범주 즉 유형은 e , t 라고 할 수 있다.

(12) 의미규칙

a. $e, t \in \text{type}$

b. If $\alpha, \beta \in \text{a type}$, then $\langle e, t \rangle$ or $\langle t, e \rangle \in \text{a type}$

여기에서 e 는 실체물(entity)을 나타내고 t 는 문장의 의미인 진리치(truth value)를 나타낸다. 즉 통사범주에 해당하는 유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Dowty; 1978). 이러한 의미유형을 토대로 하여 더 큰 표현을 유도해가는 과정은 통사부와 동일하다.

(13) 통사범주	의미유형	영어표현
s	$\langle t \rangle$	\emptyset
n	$\langle e \rangle$	John, Mary
s/n	$\langle e, t \rangle$	talk, sing
$(s/n)/n$	$\langle e, \langle e, t \rangle \rangle$	love, seek
s/s	$\langle t, t \rangle$	not, possibly
$s/(s/n)$	$\langle \langle e, t \rangle, t \rangle$	everyone

4) type이라는 개념은 Church(1940)의 Functional Theory of Types에서 처음으로 소개되었고, Dowty(1978)에서는 이를 type-theoretic theory로 발전시켰다.

이렇듯 (10)의 규칙은 서로 다른 범주를 결합하여 더 큰 구조를 형성하는 규칙으로서 함수범주와 논항범주의 결합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함수적용이란 통사적, 의미적 함수표현을 논항표현에 적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함수범주는 X/Y, Y/X의 형태를 갖는 경우이고, 논항 범주는 Y나 X에 해당하는 범주로서 함수의 왼쪽이나 오른쪽에 나타날 수 있다.

3. ‘在’의 문법적 기능

3.1 전치사로서 ‘在’

‘在’가 나타나는 위치는 일반적으로 [NP + ‘在’ + Noun, , ,]구조나 [NP + ‘在’ + Verb] 구조를 갖지만, ‘在’에 대한 의미적 해석은 이들 구조의 상이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갖는다. 의미적으로 ‘在’가 나타내는 원형적 의미는 존재(*be or exist*)를 나타내면서도 통사적 해석을 달리 하는데는 학자에 따라 ‘在’의 범주를 서로 상이하게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范继淹(1982), 张国宪(1988)에 따르면 ‘在’를 동사, 연동사, 그리고 전치사로 분류하고 있다. 우선 [NP + ‘在’ + Noun] 구조와 [NP + ‘在’ + Noun + VP] 구조 가운데 동일한 ‘在’에 대해서 전자의 ‘在’는 동사로 간주하고 후자의 ‘在’는 전치사로 분류하고 있다.

- (14) a. 我 在 家.
 I be home
 (I am at home.)
 b. 我 在 家 看 书.
 I be home read book
 (I read a book at home.)

예문(14a)의 ‘在’를 동사로 간주한 것은 통사적으로 (14a)의 구조를 [주어+동사+보어]의 구조로 파악하고 ‘在’를 영어의 *be*나 *exist*와 같은 동사로 간주한 것이다. 그런데 반해서 (14b)의 ‘在家’에서는 ‘在家’ 다음에 ‘看书’라는 동사구가 나타나기 때문에 ‘在家’를 전치사구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된다. 첫째 (14a)의 ‘在家’와 (14b)의 ‘在家’는 동일한 표현이며, 동일한 의미를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在’에 대한 문법적 기능을 파악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우선 (14a)의 ‘在家’와 (14b)의 ‘在家’가 동일한 의미라는 것은 (14b)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두 개의 구조로 풀어 써(*paraphrase*)보면 알 수 있다.

- (15) a. 我 在 家 看 书.
 I be home read book
 (I read a book at home.)
 b. 我 在 家, 并且 我 看 书.
 I be home and I read book
 (I am at home and I read a book)

(15a)의 의미는 (15b)와 동일한 의미이다. 따라서 (14a)의 ‘在家’와 (14b)의 ‘在家’는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14a)의 ‘在家’와 (14b)의 ‘在家’는 동일한 범주로 간주되어야 한다.

둘째, 만일 (14a)의 ‘在家’가 동사구라고 한다면, (14b)에는 두 개의 동사구 ‘在家’와 ‘看书’가 병립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두 개의 동사구가 병립하는 경우에는 두 동사구 사이에 동일명사구 생략(EQ-NP deletion)과 접속사 생략(conjunction reduction)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15a)의 구조는 (15b)와 같은 접속사 생략에 의하여 유도된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한국어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 (16) a. 철수는 그 길을 자주 오갔다.
 b. 철수는 그 길을 자주 오고 갔다.
 (17) a. *철수는 과일을 먹갔다.
 b. 철수는 과일을 먹고 갔다.

(16a)는 (16b)와 동일한 의미이며, (16a)는 (16b)에 접속사 생략변형이 적용되어 유도된 문장이다. 그러나 (16a)가 문법적인데 반해서 (17a)가 비문법적인 것은 두 동사가 가지고 있는 자질의 상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동사 **오다**와 **가다**는 유사한 자질의 동사들이다. 통사적으로 **가다**와 **오다**는 둘 다 자동사이고, 방향성을 제외한 의미적 자질은 동일하다. 바꾸어 말하면 (16a)의 **오갔다**는 (16b)의 [오다 그리고 가다]라는 동일한 유형의 동사이기 때문에 [오갔다]와 같은 접속사 생략 변형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17a)가 비문법적인 것은 **먹다**와 **가다**는 이들의 하위범주가 다르고, 의미적 자질도 완전히 다르다. 즉 (17a)가 비문법적인 것은 두 동사 [먹다 그리고 가다]는 서로 유형이 다른 동사이기 때문에 접속사 생략 변형이 적용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먹다**와 **가다**는 접속사 생략변형이 적용될 수 없음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在家’와 ‘看书’는 접속사 생략 변형에 의하여 유도된 경우도 아니다.

이렇듯 (14b)의 ‘在家’가 동사구가 아니라면 (14a)의 ‘在家’ 역시 동사구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a)를 완전한 문장구조로 파악함으로써 ‘在’를 동사로 다루고

있으나, (14a)의 구조에 대한 새로운 분석이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중국어는 물론이고 한국어에 있어서 존재의 의미를 나타내는 *be* 동사는 동사구에 포함되어 있거나 생략된다.⁵⁾

- (18) a. 我是 学生.
 I be student
 (I am a student.)
 b. 她 漂亮.
 She beautiful
 (She is beautiful.)
- (19) a. 나는 학생이다.
 b. 나는 예쁘다.

(18a)에서 보는 것처럼 중국어의 동사 '是'는 보어가 명사인 경우에는 출현하지만, (18b)에서 보는 것처럼 형용사나 동사인 경우 '是'는 형용사나 동사 속에 포함된다. 예컨대 (18b)나 (19b)에서 중국어의 '是'나 한국어의 **이다**는 형용사 속에 포함되어 있다. 한국어에서도 계사(copula) **이다**는 명사를 보어로 취하는 경우에는 **이다**가 나타나지만, 형용사나 동사의 경우에는 계사 **이다**가 나타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언어 보편적 현상 가운데 하나는 문장에는 반드시 동사가 나타나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른바 영어의 소절(*small clause*)은 명시적인 명제 표현 즉 문장으로 간주하면 서도 이른바 동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Ross(1973)에 따르면 명시적인 문장의 의미를 갖는 표현 가운데 동사가 반드시 생략되어야 할 경우도 있음을 보이고 있다.

- (20) a. We elected [Bill the director].
 b. * We elected [Bill to be the director].
- (21) a. we painted [the house blue].
 b. *We painted [the house to be blue].

괄호 속의 표현은 명시적인 문장이며 명사구 다음에 오는 밑줄 친 요소는 서술어로서

5) 영어에서는 계사를 삽입함으로써 문장의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중국어에서는 계사가 서술어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 (i) a. John is tall.
 b. John is at home.
- (ii) a. 约翰很高. (John is tall.)
 b. 约翰在家. (John is at home.)

기능을 한다. 이렇듯 문장의 형식 가운데는 동사의 존재가 선택적일 수 있으며, 동사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문장으로서 기능을 한다는 것은 언어 보편적 현상이다.⁶⁾

이렇듯 한국어와 영어에서 동사가 부재한 문장의 형식의 존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중국어에서도 (14a)의 경우는 동사를 결여한 문장으로 간주 할 수 있다. 즉 (14a)는 동사를 결여한 문장이라고 한다면 (14a)에서 전치사구 ‘在’는 서술어로서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14a)의 ‘在家’는 물론이고 (14b)의 ‘在家’는 전치사구이지만 전자는 서술어로서 기능을 하는데 반해서 후자는 부가어로서 기능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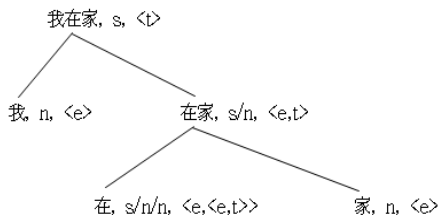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통사적 범주와 문법적 기능을 대응관계로 간주함으로써 (14a)의 ‘在’를 동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합당한 논거가 될 수 없다. 예컨대 Arrts(2013)에 따르면 전치사구도 주어로서 기능을 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 (22) a. Under the stair was a safe area to be during the war.
b. Outside the fridge is a bad place to keep milk.

(22a)의 전치사구 *under the stair*는 물론이고 (22b)의 *outside the fridge*는 모두 전치사구이다. 그럼에도 이들 두 전치사구는 주어로 쓰였다. 이러한 사실은 문법적 기능이 통사적 범주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당위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즉 전치사구도 서술어로 쓰일 수 있다는 논거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14a)의 ‘在家’는 물론이고 (14b)의 ‘在家’ 역시 전치사구이며 (14a)의 ‘在家’는 서술어로서 기능을 하며 (14b)의 ‘在’는 부가어로서 기능을 한다.

이렇듯 통사적으로 동일한 전치사구가 서술어와 부가어로서 기능만 상이할 뿐 의미적 기능이 동일하다는 것은 다음의 수행도를 보면 더욱 명백히 알 수 있다.

(23)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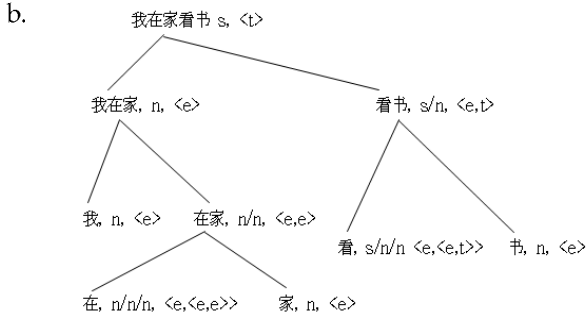


6) 소절은 더 큰 절의 주어로서 기능을 하거나 아니면 전치사의 보충어로서 기능을 하는 경우도 있다.

(i) Bill behind the wheel is a scary thought. - Small clause functioning as subject

(ii) With Bill behind the wheel, we're in trouble. - Small clause as complement of with

(i)의 Bill behind the wheel은 소절로서 *is*의 주어역할을 하는 경우이고, (ii)의 Bill behind the wheel은 전치사 *with*의 보충어 역할을 하는 경우이다.



(23a)에서 보는 것처럼 ‘在’는 ‘家’를 논항으로 취하는 함수 표현이고 다시 ‘我’를 논항으로 취하여 문장의 의미를 갖는 표현이다. 즉 ‘在’는 동사나 전치사나의 통사적 범주의 문제가 아니라 ‘在’가 ‘家’와 결합하여 다시 ‘我’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문법적 기능만으로 (14a)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특히 수형도가 보여준 통사적 관계뿐만 아니라, 삼각괄호 <, >의 의미 유형 역시 (14a)의 ‘我在家’는 문장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14b)의 수형도인 (23b)에서도 ‘我在家看书’는 문장이며 의미는 진리치(truth value)를 나타낸다. 즉 ‘在’는 ‘家’를 논항으로 취하고 다시 ‘我’를 논항으로 취하여 동사구 ‘看书’의 논항이 되는 구조로 이해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서 (14a)와 (14b)의 ‘在’는 전치사이며, 각각의 논항은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와 같이 ‘在’의 문법적 기능을 이해한다면 하나의 동일한 표현을 두고 서로 다른 범주를 부여함으로써 야기된 문제를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다.

3.2 전치사구로서 연동사구

‘在’의 범주 설정에 있어서 또 다른 하나의 문제는 동일한 구조에 대해서 전치사구로 규정하기도 하고 연동사구로 규정하기도 한다는 점이다.

- (24) a. 我在家看书.
 I be home read book
 (I read a book at home.)
 b. 我在水壶烧水.
 I be kettle boil water
 (I boil water in a kettle.)

夏焱(1989)에 따르면 (24a)와 (24b)는 동일한 구조를 갖는 경우이지만, (24a)의 ‘在家’는

전치사구로 규정하고 (24b)의 ‘在水壺’는 후행하는 동사 ‘燒’와 더불어 연동사구를 이룬다는 것이다. 이렇듯 동일한 구조를 두고 서로 다른 범주를 설정한 것은 ‘在家’와 ‘在水壺’의 의미적 관계가 상이하다는 데에 근거한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24a)는 독립적인 두 개의 문장으로 분리하여도 동일한 의미를 갖는데 반해서 (24b)는 독립적인 두 개의 문장으로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 (25) a. 我 在 家.
 I be home
 (I am at home.)
 b. *我在 水壺.
 I be kettle
 (I am in a kettle.)

(25)에서 보는 것처럼 (25a)는 문법적인데 반해서 (25b)는 비문법적이다. 즉 주어인 ‘我’가 집에 있을 수는 있지만, 주전자 속에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25b)는 비문법적이다. 특히 ‘在水壺’는 ‘燒水’하는 행위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在···燒’구조는 연동사구라는 것이다.

그러나 동일한 전치사구라 할지라도 부가어(adjunct)로서 기능을 하는 경우와 보충어로(complement)서 기능을 하는 경우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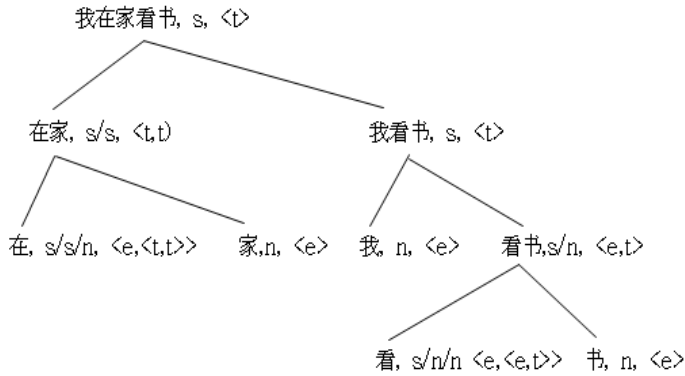
- (26) a. John saw the book on the table.
 b. John put the book on the table.
 (27) a. John saw the book.
 b. * John put the book.

(26)에는 동일한 전치사구 *on the table*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전치사구라고 하더라도 (26a)의 *on the table*은 생략 가능한데 반해서 (26b)의 *on the table*은 생략이 불가능하다. 즉 (27a)가 문법적인데 반해서 (27b)는 비문법적이다. 즉 (27)의 두 문장의 문법성과 비문법성으로 보아 *on the table*을 전치사구로 정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바꾸어 말하면 (26a)의 *on the table*은 이른바 부가어로서 기능을 하는데 반해서 (26b)의 *on the table*은 보충어로서 기능을 한다. 즉 동일한 범주의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문법적 기능이 상이함을 볼 수 있다. 이렇듯 동일한 전치사구라 할지라도 문장의 구조에 따라 부가어로서 기능이나 보충어로서 기능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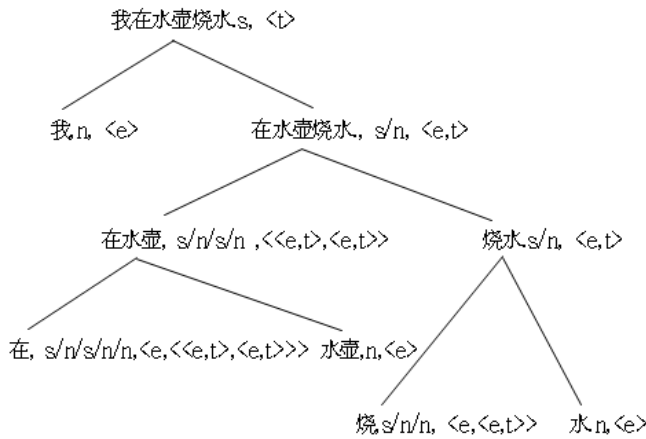
영어뿐만이 아니라 중국어의 [‘在’ + NP + VP] 구조 가운데 [‘在’ + NP]는 전치사구로

서 후행하는 VP와의 관계에서 부가어로 쓰이는 경우도 있고, 보충어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이를 수형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28a)는 ‘在家’가 문장부사로서⁷⁾ 기능을 하는 경우로서 문장 ‘我看书’를 논항으로 취하는 경우이다. 즉 ‘在家’는 전치사구이지만, 문장을 논항으로 취하여 문장을 유도하는 문장부사의 역할을 하는 경우이다. 그리고 (28b)의 수형도에서 ‘在水壶’는 술부사로서 동사구 ‘烧水’를 논항으로 취하는 부사이다.

(28) a.



b.



바꾸어 말하면 ‘在水壶’는 함수자 표현임으로 반드시 논항 ‘烧水’가 있어야 하며, 함수자-논항은 하나의 구성요소를 이룬다. 이렇듯 [‘在’ + NP]에 대해서 부가어로 쓰이는 경우는 전치사구로, 그리고 보충어로 기능을 하는 경우는 후행하는 동사와 더불어 연동사구조로 분석

7) 수형도에서 ‘在家’를 문장 앞에 쓴 것은 ‘在家’가 문장을 논항으로 취하고 있음을 보이기 위한 것이다.

한 것은 형태적 특성이나 의미적 특성만을 고려한 분류일 뿐 문법적 기능을 간과한데서 비롯된 오류이다.

4. 상동사로서 ‘在’

통사적으로 제1동사 V1과 제2동사 V2가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가운데는 이른바 연동사 간주할 수 있는 경우와 [AUX + VP] 구조를 갖는 경우가 있다. 의미상으로는 제2동사가 핵심적 사건을 나타내고 V1은 V2의 보조적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라 할 수 있다.

- (29) a. 他 去 买 书.
 He go buy book
 (He went out to buy a book.)
 b. 我 在 看 书.
 I be read book
 (I am reading a book.)

(29a)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의 주어(가)가 두 개 이상의 동사를 수반하여 이들 두 동사 가운데 하나는 다른 동사의 동작의 목적이나 방법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쓰이는 경우이다. 예컨대 (29a)에서 제1동사 ‘去’는 제2동사 ‘买’(buy)가 나타내는 행위를 하기 위한 목적이나 방법을 나타낸다. 이렇듯 (29b)의 ‘在看’은 (29a)의 ‘去买’(go out buy)와는 서로 문법적 기능이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즉 (29a)의 ‘去买’는 연동사라고 할 수 있고, (29b)의 ‘在看’은 연동사가 아니라 ‘在’는 ‘看’의 상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V1 + V2] 구조를 갖는 경우라 할지라도 ‘在看’과 같은 경우는 연동사가 아니라 상(aspect)동사와 본동사가 결합된 경우라 할 수 있다. 상이란 동사가 나타내는 사건의 시작이나 과정 또는 끝을 나타낼 수도 있으며, 또는 사건이 완료되거나 완료되지 않은 경우 경우일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상이란 동사가 나타내는 사건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을 말한다⁸⁾.

이렇듯 중국어의 ‘在看书’에서 ‘在’는 ‘看书’하는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상적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8) 상이란 어떤 상황이 주어진 시간 내에서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기록하는 문법적 현상을 말한다. Arrts (2013:171)는 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The notion of aspect is concerned with the way in which the grammar of a language encodes how situations unfold over time.”

- (30) a. 我 在 看 书.
 I be read book
 (I am reading a book.)
 b. 我 正 在 进行中的事 是 看 书.
 I just be in-progress-of event is read book
 (What I am doing is read a book.)

즉 (30a)의 의미를 (30b)와 같이 풀어 쓸 수 있는 것은 '在'가 나타내는 의미가 상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在'가 상적(aspectual) 의미를 갖는 경우는 전치사로서의 기능과는 상이함을 살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상은 동사가 갖는 특성으로서 문법적 상과 의미적 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⁹⁾. 이러한 상의 구조적 특성은 SOV 언어에서는 AUX + V의 구조를 가지며 AUX가 상적 의미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시제조동사와 상조동사를 동일한 요소로 간주하기도 한다.

- (31) 我在看书.

(31)에서 보는 것처럼 '在'는 본동사 '看' 앞에 위치하는 경우로서 일반적으로 AUX의 위치에 나타나며, 동사를 논항으로 취하는 함수표현으로 간주되고 있다.

- (32) a. John is reading a book.
 b. John PROGRESSIVE read a book.
 (33) a. John has read a book.
 b. John PERFECTIVE read a 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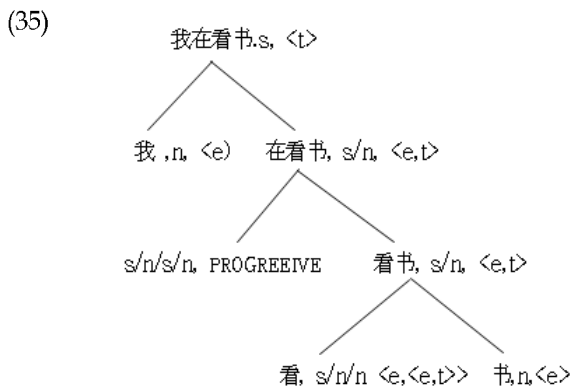
(32)와 (33)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진행상과 완료상은 본동사가 나타내 나타내는 사건이 주어진 시간 내에서 변화하는 모습을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은 시점을 나타내는 시간부사와는 공기할 수 없다.

- (34) a. * I am reading a book today.
 b. * 我 今天 在 看 书.
 I today be read book.
 *(I am reading a book today)

9) 영어에서는 진행상(progressive aspect)과 완료상(perfect aspect)과 같은 형태상의 상과 동사가 나타내는 반복상(예컨대 giggle), 중지상(예컨대 stop), 그리고 계속상(예컨대 continue)처럼 의미적 특성을 갖는 경우가 있다.

(34a)의 영어표현은 물론이고 (34b)의 중국어에서도 진행형과 현재시점을 나타내는 시간 부사와는 공기할 수 없음을 볼 수 있다. 진행을 나타내는 진행상은 동사가 나타내는 사건이 주어진 시점에서 발생하여 종료되는 경우가 아니라 일정기간동안 유지되는 경우이다¹⁰⁾. 이와 같이 중국어의 '在'가 갖는 의미는 동사가 나타내는 사건이 지속된다는 사실만을 말할 뿐 사건 자체의 의미와는 관련이 없다.

이렇듯 상적 의미를 나타내는 '在'의 의미 기술에 있어서는 다만 상적의미만을 갖는다는 주장만 있었을 뿐 '在'가 동사가 나타내는 사건의 면모를 형식적으로 기술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나아가서 상적 요소는 조동사 AUX와 명시적 구분을 하지 못함으로써 AUX가 문장을 논항으로 취하는 시제함수자와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이렇듯 중국어 '在'는 존재의 의미나 시간이나 장소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동사구 '看书'의 함수자로서 간주할 수 있다. 즉 '在'는 AUX의 자리에 나타나지만, 시제연산자와는 의미적으로 상이하다. 시제 연산자는 문장을 논항으로 취하지만, 상을 나타내는 '在'는 동사가 나타내는 사건이 주어진 시간 내에서 변화하는 모습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동사구를 논항으로 취한다. 바꾸어 말하면 '在'의 의미적 자질은 동사나 전치사의 특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35)의 수형도에서 보는 것처럼 PROGRESSIVE 라는 문법적 기능만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¹¹⁾

10) 이러한 점에서 소유를 나타내는 have 동사를 포함한 중간동사(middle verb) 동사는 진행형을 가질 수 없다.

11) 문법적 기능을 가장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지시적 대상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예컨대 John의 의미는 john이라는 개체(individual)인 대상물(object)을 지시한다면 동사 walk의 의미는 걷고 있는 개체의 집합(set of individuals)인 대상물을 지시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접속사 and의 의미는 명시적인 지시 대상물이 아니라 지시대상 사이의 함수자로 나타낼 수 있다. 이 경우 and의 의미는 문법적 기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5. 결론

본고에서는 '在'가 갖는 의미적 특성을 범주문법의 모형에 따라 함수-논항관계로 기술함으로써 다양한 범주 설정에 따른 의미해석의 문제를 간결하고 명료하게 형식적으로 기술하였다. 특히 '在家'라는 하나의 표현을 두고 '在'의 통사적 범주를 동사, 전치사, 연동사 등으로 분류하였으나, '在'는 존재의 의미를 갖는 전치사로서 서술어의 기능을 갖는다는 것을 논의하였다. 또한 '在家'는 전치사구 또는 연동사구로 구분하였으나, 이는 문장부사와 술부부사로서 차이점을 간과한데서 비롯된 것임을 논의 하였고, 나아가서 [V1 + V2]를 갖는 연동사 가운데 ['在' + V]구조는 연동사가 아니라 [AUX + V]로 파악하고 '在'는 시제연산자가 아니라 상호동사임을 밝히고, '在'가 나타내는 상적 의미를 형식적으로 기술하였다.

참고문헌

- 강범모. (2003). 『범주문법』, 서울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 이영현. (2005). 단순동사와 사술동사의 상적 분류와 의미, *대한언어학회*, 13권.
- 이영현. (1995). 『기초형식의미론』, 서울. 한신문화사.
- Ajdukiewicz, K. (1935). Syntactic Connexion, in Storrs McCall (ed) *Polish Logic*, Oxford.
- Arnts, B. (2013). *English Syntax and Argumentation*, Modern Linguistic Series, Newcastle, UK.
- Bar-Hillel, Y. (1953). A Quasi-arithmetical Notation of Syntactic Description, *Language*, 19.
- Church, Alonzo. (1940). A Formulation of the Simple Theory of Types, *Journal of Symbolic Logic*, 5, 56-68.
- Cinque, G. (1999). *Adverbs and Functional Head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Cresswell, M. J. (1973). *Logics and Languages*, London, Methuen & Co.
- Dowty, D. R. (1978). *A Guide to Montague's PTQ*,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Linguistics Club.
- Lambeck, J. V. (1961). The Lambeck Calculus, in *Categorial and Natural language Structure*, (et.al) D. Dordrecht. Reidel Publishing Company.
- Ross, John, R. (1973). Nouniness, *In three dimension of Linguistic Theory*, ed by Osamu Fujimura, 139-257, Tokyo.
- Sebba, M. (1987). *The Syntax of Serial Verbs*, 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 Co.

- Vendler, Z. (1967). *Linguistics in Philosophy*, NY. Cornell University Press.
- 范繼淹, (1982), 論介詞短語“在+處所”[J], 語言研究.
- 黃健秦, (2013), “在+處所VP”與“V在+處所”的構式承繼關係與語篇關係[J], 當代修辭學.
- 李志賢(2014), 現代漢語介詞短語“在+NP”的語序制約因素及其構式義考察[D], 上海師範大學.
- 梁珺(2014), 句首介詞“在”的偏誤分析以及對外漢語教學策略[D], 湖南師範大學.
- 林齊倩(2004), 介引處所的介詞短語“在NL”[D], 蘇州大學.
- 劉宇生(1984), 句首介詞結構“在……”的語義指向[J], 漢語學習.
- 劉小梅(2008), 論英漢介詞與介詞短語的異同[J], 河北北方學院學報.
- 呂叔湘(1999), 現代漢語八百詞, 北京, 商務印書館.
- 王還(1980), 再說說“在”[J], 語言教學與研究.
- 夏焱(1989), 「小張在輪船上看報, 是連動句嗎? 固原師專學報.
- 俞咏梅(1999), 論“在+處所”的語義功能和語序制約原則[J], 中國語文.
- 張國憲(2009), 在+處所”構式的動詞標量取值及其意義浮現[J], 中國語文.
- 張國憲(1988), 從“在”的兼類看動詞和介詞的區分, 邏輯與語言學習.
- 張亞軍(2002), 時間副詞“正”, “正在”, “在”及其虛化過程考察, 上海師範大學學報.
- 朱德熙(1981), “在黑板上寫字”及相關句式[J], 語言教學與研究.

최성훈

61756 광주광역시 남구 송암로 73
송원대학교 국제교육원
전화: 062-360-5825 / 010-7278-3395
이메일: 21shchoi@hanmail.net

서월아

61452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09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전화: 010-5919-0521
이메일: xye0313@hotmail.com

Received on December 8, 2015

Revised version received on March 18, 2016

Accepted on March 30, 2016